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

Effects of Job Autonomy on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Job Satisfaction

최은희
충북연구원

Eun-Hee Choi(ehchoi@cri.re.kr)

요약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의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에서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여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849명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진로의식성숙은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교육포부에 따라서는 고졸 희망학생이 전문대졸, 대졸이상 학생보다 더 높았다. 둘째,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은 성별과 교육포부에 따라 진로의식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업무만족도는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였으며, Sobel test 결과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진로의식성숙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일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장에서 부여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주들은 청소년 직업교육 협조자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는 질 높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진입경로를 공식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업무자율성 | 업무만족도 | 진로의식성숙 | 매개효과 | 교육포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mediation effect of job satisfaction between job autonomy and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It sampled 849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part-time work.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18.0 version. Result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variables(gender, educational aspiration) and main variables. Females showed higher level of job autonomy, job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than males' ones. Second, job autonom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career maturity by gender and educational aspiration.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prov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job autonomy and career maturit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at adolescents actively participate when they work on the field, and employers have to recognize a role of collaborator about vocational education to increase the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Also, communities and schools have to give adolescents right information on job and make an official system to find a good job.

■ keyword : | Job Autonomy | Job Satisfaction | Career Maturity | Mediation Effect | Educational Aspiration |

1. 서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평면적인 학교진로교육에 현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교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학업에 몰입해야 할 청소년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 경험과 직업세계 이해라는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고용노동부[1]의 중3~고3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7.4%, 안선영 등[2]의 중고생 4023명 대상 조사에서는 25.1%이었으며, 특히 특성화고 학생의 경험률은 44.9%로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표집학년, 학교유형 등에 따라 편차가 크며 국내연구의 경우 17.0~34.1%, 외국은 33.0~64.0%로 외국 청소년의 경험률이 우리나라 청소년보다 2배 정도 더 높다. 캐나다의 경우 12~17세의 52.0%가 주당 6시간 이하의 일을 하며[3], 호주는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이 64.0%이다[4]. 특히 4년제 대학 이상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9학년 때 학업에 더 동기화되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나, 학업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은 청소년은 학교경험보다 일에 대한 경험을 더 축적하고 책임감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4].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일반계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보다 더 높은 것과 유사하다.

청소년의 직업체험 중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가장 강도가 높고 진로성숙, 진로와 직업의식 증가[5], 학교생활적응 향상, 자기효능감 및 자신감 향상[2][3]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미고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체불 및 삭감,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29]되는 것으로 볼 때, 학교청소년의 1/3정도가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환경은 사회적 자본 축적을 어렵게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명암이 존재하는 가운데 학교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선행연구들[2][6][7][16]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실태와 경험, 법과 제도 준수에 반복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르바이트 경험과

질, 아르바이트를 통한 만족감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고찰하지 않았다. 이것이 선행연구의 첫 번째 한계이자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연구와 달리 성인의 일(근로)에 관한 연구들은 업무환경, 업무만족도, 업무자율성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기울였고[8-10], 더 나아가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게 하고 일을 통한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12]고 보고한다. 성인들이 일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는 일과 학업을 통해 진로의식을 발달시킨다. 진로의식은 전 생애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에 대한 준비 정도로 청소년기에 비약적으로 발달한다[27]. 따라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비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노동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하는 아르바이트도 성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고찰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의 두 번째 한계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험률에 중점을 두고 경험여부와 주요 변수들의 평균 차이를 고찰[5][14][23]하였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진로의식성숙을 포함한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효진과 최진선[14]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근로의식과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의 문항에 대한 응답률로만 파악하였다. 구효선[14]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안소윤[5]도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 그리고 아르바이트 업무만족도(불만족, 보통, 만족)에 따른 진로의식성숙 차이를 파악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아르바이트의 경험 유무를 통한 실태 비교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한 업무자율성이 청소년의 진로의식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성인의 일 관련 연구들은 근무환경, 직무여건이 업무만족도[19]에, 업무만족도는 업무성과 및 성취도

[30][32] 등에 영향을 미쳐 업무만족도의 매개역할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는 아직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업무만족도의 매개역할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업무 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질과 진로의식성숙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아르바이트의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진로의식성숙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은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은 업무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진로의식성숙

일이란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일하는 존재로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과 함께 특성화고와 대안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증가하여 10대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일(근로)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특히 발달단계상 새로운 경험이 강하게 각인되며 외부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하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일 경험은 사회화와 정체성 형성, 진로의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이러한 맥락에서 구효진 등[14]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우게 되는 직업의식은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근로의식, 책임감, 성실감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았다.

진로의식성숙과 관련된 변인은 연령, 학년, 경제수준,

부모교육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연령, 학년, 부모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성숙도는 높다[23].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을 탐색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진로의성숙의 태도, 행동 모두 높고[15],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진로 및 취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한다[6][16]. 김정현[6]의 경우 일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직업세계의 현실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미래의 직업 결정과 졸업 후 직업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반면, 김종성과 이병훈[17]은 아르바이트 경험여부가 진로의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아르바이트 경험만으로도 진로의식이 높아진다는 결과[6][15][16]가 지배적인 가운데 아르바이트의 내용 및 환경이 우수하고 업무만족도가 높을 경우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경험 → 진로의식성숙의 인과관계가 형성되며, 경험의 속성 중 긍정적인 측면인 업무자율성은 진로의식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업무자율성과 업무만족도의 관계

업무자율성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련된 일 정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자유, 독립성과 재량권을 수여하는 것'[18 재인용]이며, 업무만족도는 자신의 업무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호/불호의 감정 상태로 동료와의 관계, 임금, 직무자체, 근무 환경으로 구성된다.

업무자율성은 업무자체에 의미감을 강화해주고 업무수행에 대한 자아성취감을 증진시킨다. 그 결과 내적 동기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도 증진된다[19]. 업무자율성은 이직이나 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Glisson과 Dutick[19 재인용]은 직무자율성이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박지에[31]는 낮은 업무자율성은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업무자율성과 업무만족도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업무자율성의 결핍은 업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직의 주요요인이 된다[20].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에 적용하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고등학생의 의견 반영, 원하는 방식의 일처리는 쉽지 않은 일이나 고용주가 부여하는 자유재량은 아르바이트 업무만족도를 높이고, 직업의식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이탈을 낮출 수 있다.

3. 업무만족도와 진로의식성숙의 관계

진로의식성숙은 ‘한 개인의 연령과 발달단계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및 태도’[21]로 점진적으로 성숙해 간다.

정경은 등[23]은 임금수준과 진로성숙도는 부적(-)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안소윤[5]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 만족정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도를 비교한 결과 급여만족도, 동료관계만족도, 노동강도만족도 수준에 따라 진로의식성숙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양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직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진로에 대한 뚜렷한 의식 변화의 기회가 되며, 진로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들 중 유일하게 인과관계를 분석한 최은희[22]의 연구는 근무시간만족도, 업무내용만족도, 동료관계만족도가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무만족도와 진로의식성숙을 포함한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관계를 정리하면 업무자율성 → 진로의식성숙, 업무자율성 → 업무만족도 → 진로의식성숙의 인과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관련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성인의 일 연구에서 확인한 것으로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에서도 연구모형이 성립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그림 1]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진로의식성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업무자율성은 진로의식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업무자율성은 업무만족도를 통해 진로의식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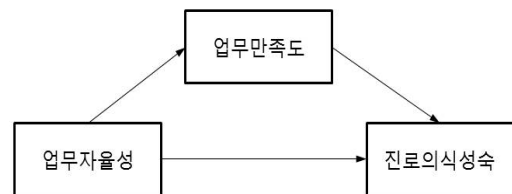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충북 지역 9개 시·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849명이다. 자료 수집은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문 리서치센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를 묻고 아르바이트 경험자에게만 설문지를 배포하여 1:1로 작성하였다. 전문조사자가 현장에서 설문을 검토한 후 누락된 문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하여 849부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	422	49.7	학년	고1	374	44.1
	여	427	50.3		고2	475	55.9
학교 유형	일반고	328	38.6	지역	시	521	61.4
	특성화고	521	61.4		군	328	38.6
교육 포부	고졸	219	25.8	경제 수준	상	166	19.6
	전문대졸	244	28.7		중	439	51.7
	대졸이상	386	45.5		하	244	28.7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학생 49.7%, 여학생 50.3%로 시지역에 61.4%, 군지역에 38.6%가 거주하였다. 학교는 특성화고 61.4%, 일반고 38.6%이며, 교육포부는 고졸 25.8%, 전문대졸 28.7%, 대졸이상 45.5%로 대졸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경제수준은 중간정도로 인식한 비율이 51.7%이다.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 업무자율성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은 안선영 등[24]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나의 기술이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자율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선영 등[24]의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실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여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다.

2) 매개변수 : 업무만족도

아르바이트 업무만족도는 고용노동부[1]에서 사용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근로시간’, ‘근로환경’, ‘근로강도’,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 질문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1]의 조사에서는 업무만족도를 개별문항별로 분석하여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8$ 이다.

3) 종속변수 : 진로의식성숙

진로의식성숙은 최은희[22]가 사용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진로의식성숙은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식성숙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최은희[22]의 연구에서는 각 만족도의 수준만을 분석하여 신뢰도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지역, 경제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할 때는 교육포부를, 교육포부에 따라 분석할 때는 성별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인구학적 특성과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진로의식성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25]가 제시한 단계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성을 확인한다. 2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성을 확인한다.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성을 확인한다. 이때 독립변수의 효과(β 값)는 감소해야 한다.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라고 하고,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면 부분매개라고 한다.

이후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b^2s_a^2 + a^2s_b^2}}$$

a = 업무자율성 → 업무만족도의 비표준화계수

b = 업무만족도 → 업무만족도의 비표준화계수

s_a^2 = 경로 a의 표준오차

s_b^2 = 경로 b의 표준오차

IV. 분석결과

1. 변수의 타당도 검증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요인모형을 추정

하고 직각회전 방식 중 Varimax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으며,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Kaiser기준을 적용하였다.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진로의식성숙의 KMO측도와 Barlett's 검정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세 변수 모두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표 2. 변수들의 KMO측도와 Barlett's 검정결과

문항	업무 자율성	업무 만족도	진로의식 성숙
KMO측도	.888	.692	.890
Barlett 검정	근사카이제곱	2428.99	539.15
	자유도	15	6
	P	.000	.000

업무자율성 요인분석결과 요인은 단일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은 .740이상이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62.80%를 설명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표 3].

표 3. 업무자율성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업무자율성 1	.795	
업무자율성 2	.746	
업무자율성 3	.740	
업무자율성 4	.807	
업무자율성 5	.836	
업무자율성 6	.826	
회전제곱합 적재값	합계	3,768
	% 분산	62,802
	% 누적	62,802

업무만족도 또한 단일차원으로 요인부하량은 .677이상으로 전체 변량의 51.45%를 설명하였으며[표 4], 진로의식성숙은 요인부하량이 .505이상으로 전체 변량의 52.90%를 설명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5].

표 4. 업무만족도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업무만족도 1	.690	
업무만족도 2	.757	
업무만족도 3	.677	
업무만족도 4	.742	
회전제곱합 적재값	합계	2,058
	% 분산	51,447
	% 누적	51,447

표 5. 진로의식성숙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진로의식성숙 1	.802	
진로의식성숙 2	.695	
진로의식성숙 3	.505	
진로의식성숙 4	.656	
진로의식성숙 5	.734	
진로의식성숙 6	.768	
진로의식성숙 7	.799	
진로의식성숙 8	.809	
회전제곱합 적재값	합계	4,232
	% 분산	52,900
	% 누적	52,900

2. 변수들의 집단 간 평균 비교

각 변수들의 평균을 보면 업무자율성이 2.64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다 낮아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등학생들이 업무의 자율성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업무만족도는 3.11점, 진로의식성숙은 3.36점으로 중앙값 이상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업무만족도($t=-2.11, p<.05$), 진로의식성숙($t=-2.00,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교육포부에 따라서는 업무자율성($F=18.48, p<.001$), 업무만족도($F=9.13, p<.001$), 진로의식성숙($F=17.82, p<.001$)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고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문대졸, 대졸이상을 희망하는 집단에 비해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가 더 높으며 진

로의식성속도 가장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업무자율성($F=12.42, p<.001$)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업무만족도($t=-2.90, p<.01$)와 진로의식성속($t=-2.20, p<.05$)에서 군지역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았다.

표 6.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 비교

구분	M(sd)/Scheffe			
	업무 자율성	업무 만족도	진로의식 성속	
M(SD)	2,64(.70)	3,11(.60)	3,36(.70)	
성별	남	2,60(.67)	3,06(.54)	3,31(.70)
	여	2,68(.72)	3,15(.58)	3,40(.69)
	t	-1,91	-2,11*	-2,00*
학교 유형	일반고	2,65(.67)	3,11(.56)	3,36(.67)
	특성 학교	2,63(.72)	3,10(.62)	3,35(.72)
	t	,32	,24	,20
학년	1학년	2,65(.68)	3,06(.58)	3,35(.67)
	2학년	2,62(.71)	3,14(.61)	3,36(.72)
	t	,63	-1,93	-,28
교육 포부	고졸	2,84(.58)c	3,24(.56)b	3,58(.64)b
	전문 대졸	2,68(.67)b	3,12(.60)ab	3,35(.68)a
	대졸 이상	2,50(.74)a	3,02(.61)a	3,24(.71)a
	F	18,48***	9,13***	17,82***
경제 수준	상	2,88(.58)b	3,19(.61)	3,38(.66)
	중	2,58(.71)a	3,11(.61)	3,38(.73)
	하	2,57(.72)a	3,06(.57)	3,30(.66)
	F	12,42***	2,25	1,19
지역	시	2,60(.67)	3,06(.61)	3,31(.71)
	군	2,70(.74)	3,18(.58)	3,42(.68)
	t	-1,75	-2,90**	-2,20*

**** $p<.001$, ** $p<.01$, * $p<.05$

3.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이전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르바이트의 업무자율성은 업무만족도($r=.52, p<.001$), 진로의식성속($r=.48, p<.001$)과, 업무만족도는 진로의식성속($r=.44, p<.001$)과 각각 정적(+)인 관계가 있다. 즉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업무만족도와 진로의식성속이 더 높아지며, 업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진로의식성속도 향상된다.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보통 정도이나 추가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지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40, 공차한계(tolerance)

는 0.72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진로의식성속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52***		
진로의식성속	.48***	.44***	
M(SD)	2,64(.70)	3,11(.60)	3,36(.70)

**** $p<.001$, ** $p<.01$, * $p<.05$

4.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속의 관계에서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는 성별과 교육포부에 따라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성별 간 아르바이트 참여업종이 차이가 있고, 교육포부가 낮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더 높은 것에 기반하여, 본 분석에서는 성별과 교육포부에 따라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이 진로의식성속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성별에 따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속의 관계에서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이 진로의식성속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이 진로의식성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beta=.46, p<.001$)과 여학생($\beta=.45, p<.001$)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무자율성의 진로의식성속 설명력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25%, 24%이다.

2단계에서 업무자율성이 매개변수인 업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업무자율성이 업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beta=.53, p<.001$)이 남학생($\beta=.48, p<.001$)보다 업무자율성이 업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높았으며, 설명력은 여학생 32%, 남학생 2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업무자율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매개변수인 업무만족도를 추가하여 진로의식성속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

인 업무만족도를 통제한 후 진로의식성숙의 직접적인 효과는 남학생의 경우 $\beta=.46(p<.001)$ 에서 $\beta=.36(p<.001)$ 으로, 여학생은 $\beta=.45(p<.001)$ 에서 $\beta=.29(p<.001)$ 로 낮아져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업무만족도는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한다. 3단계에서 설명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일하게 28%로 나타났다.

이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남학생 $Z=4.22(p<.001)$, 여학생 $Z=4.39(p<.001)$ 로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에서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표 8. 성별에 따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에서 업무만족도 매개효과

구분	독립	종속	성별	B	β	R^2	F
1단계 (독립→종속)	업무 자율성	진로 의식 성숙	남	.49	.46 ***	.25	33.88 ***
			여	.43	.45 ***	.24	33.83 ***
2단계 (독립→매개)	업무 자율성	업무 만족 도	남	.39	.48 ***	.24	32.35 ***
			여	.47	.53 ***	.32	49.82 ***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업무 자율성	진로 의식 성숙	남	.38	.36 ***	.28	32.63 ***
				.28	.22 ***		
	여		.28	.29 ***	.28	36.49 ***	
			.32	.30 ***			

*** $p<.001$, ** $p<.01$, * $p<.05$
통제변수: 지역, 경제수준, 교육포부

2) 교육포부에 따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에서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업무자율성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포부가 고졸($\beta=.49, p<.001$), 전문대졸($\beta=.33, p<.001$), 대졸이상($\beta=.49, p<.001$) 모두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무자율성의 진로의식성숙 설명력은 고졸 26%, 전문대졸 13%, 대졸이상 26%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업무자율성이 매개변수인 업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고졸($\beta=.40, p<.001$), 전문대졸($\beta=.51, p<.001$), 대졸이상($\beta=.39, p<.001$)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업무자율성의 업무만족도 설명력은 고졸 20%, 전문대졸 27%, 대졸이상 17%이다.

표 9. 교육포부에 따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에서 업무만족도 매개효과

구분	독립	종속	성별	B	β	R^2	F
1단계 (독립→종속)	업무 자율성	진로 의식 성숙	고졸	.55	.49 ***	.26	18.67 ***
			전문 대졸	.33	.33 ***	.13	8.87 ***
			대졸 이상	.47	.49 ***	.26	34.14 ***
2단계 (독립→매개)	업무 자율성	업무 만족 도	고졸	.39	.40 ***	.20	13.60 ***
			전문 대졸	.45	.51 ***	.27	22.21 ***
			대졸 이상	.46	.39 ***	.17	20.06 ***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업무 자율성	진로 의식 성숙	고졸	.38	.34 ***	.38	25.79 ***
				.44	.39 ***		
	업무 만족도		전문 대졸	.18	.18 *	.17	11.01 ***
				.32	.28 *		
	업무 자율성		대졸 이상	.38	.40 ***	.28	30.18.5 6 ***
				.20	.17 ***		

*** $p<.001$, ** $p<.01$, * $p<.05$
통제변수: 성별, 지역, 가정경제수준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업무자율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매개변수인 업무만족도를 추가하여 진로의식성숙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인 업무만족도를 통제한 후 진로의식성숙의 직접적인 효과는 교육포부가 고졸인 학생의 경우 $\beta=.49(p<.001)$ 에서 $\beta=.34(p<.001)$ 로, 전문대졸 $\beta=.33(p<.001)$ 에서 $\beta=.18(p<.05)$, 대졸이상 $\beta=.49(p<.001)$ 에서 $\beta=.40(p<.001)$ 으로 낮아져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업무만족도는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3단계에서 설명력은 교육포부가 고졸인 경우 38%, 전문대졸 17%, 대졸이상 28%로 나타났다.

이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

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고졸 $Z=4.56$ ($p<.001$), 전문대졸 $Z=3.76$ ($p<.001$), 대졸이상 $Z=4.85$ ($p<.001$)로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에서 업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의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하고 있는) 고등학생 849명을 대상으로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 수준을 점검하고 업무만족도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업무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가설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업무자율성, 직무만족도, 진로의식성숙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일부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부분적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성별에 따라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진로의식성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수준이 더 높았다. 교육포부에 따라서는 교육포부가 고졸인 학생들의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진로의식성숙이 전문대졸, 대졸이상을 희망하는 학생들 집단보다 더 높았다.

여학생의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성인대상 연구에서 여성의 업무자율성, 직무만족도가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26]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성인대상의 연구[9-11]는 동일한 직업내에서의 비교이어서 여러 업종을 경험한 청소년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변수들의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남학생과 여학생 간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유형이 다르다는 것에 무게를 둔다. 성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의 차이는 선행연구[22]에서도 나타난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택배상하차, 건설 및 공장노동과 같이 자율성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은 유형에 참여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3~10배 이상 높고, 카운터 및 서빙, 상점에서 판매 등 내근하는 유형은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1.5~2배 정도 높아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교육포부에 따라서 고졸 희망학생들의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 진로의식성숙이 높은 것은 당장 1-2년 이내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곧 진입할 사회에 대한 선행체험이 되므로 전문대졸 이상 희망 학생들 보다 직업세계를 이해하는데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연구가설 2. <업무자율성은 진로의식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성별과 교육포부에 따라 업무자율성은 진로의식성숙을 유의하게 설명한다.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은 향상되었다. 성인의 일에 관한 연구에서 업무자율성은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전환하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본다[27]. 즉 직무만족, 직무성과, 조직몰입 등과 관련성이 높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종의 제한성, 업무내용의 단순성 및 반복성[2]으로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높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판매직(핸드폰, 의류판매 등), 기술직(바리스타 등)의 경우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사람 및 상황과의 접촉은 순발력과 대인관계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주가 위임하는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율성의 폭과 깊이의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로 청소년의 발달과 직업선택의 가치를 정립하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관련 연구들[22][24]은 일관되게 청소년에게 적합한 아르바이트 직종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렇다할만한 성과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업무자율성이 진로의식성숙을 향상시킨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자율적이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위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적극적인 참여노력, 고용주의 관심과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고용주는 사업체(영업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존재로써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직업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주는 단순히 아르바이트 공간의 제공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서 학교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을 교육하는 주체 및 협력자로서 역할을 인식해야한다.

셋째, 연구가설 3. <업무자율성은 업무만족도를 통해 진로의식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업무만족도가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별과 교육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 하였다. 업무자율성이 업무에서 개인의 참여(역할)에 관한 것이라면, 업무만족도는 업무내용을 포함한 동료관계 등의 만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업무자율성은 진로의식성숙에 직접효과도 있으나, 업무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성숙 향상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 내용 및 경험의 질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업무자율성과 업무만족도가 높은 아르바이트 업종에서의 경험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교육에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구직경로가 주변(친구)의 소개, 인터넷 알바사이트, 길거리나 매장의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2][22]. 특히 본 조사의 경우 타 연구에 비해 길거리나 매장광고를 통한 구직이 높았다. 이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구직과정으로 사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불합리한 조건의 사업체로 청소년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직경로를 좀 더 공식화하여 업무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속에서 청소년들이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고용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양질의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무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직업세계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을 높이는 아르바이트가 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관련 기관(인권센터), 교육청, 공공행정기관 및 고용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실 진단 및 개선 방

안, 교육적 효과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주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시간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속품이 아니라, 일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자하는 근로자라는 시각을 가질 때, 청소년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르바이트 업무의 질적 품질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업종에 대해 ‘협의회’ 주도적으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곳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증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또는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고등학생 및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별과 교육포부에 따라 업무자율성, 업무만족도가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미치며,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에서 업무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관련연구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참고문헌

- [1]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11.
- [2]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3] L. Laberge, E. Ledoux, J. Auclair, and M. Gaudreault, “Determinants of sleep dur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part-time employment, *International Mind*,” *Brain, & Education*, Vol.8, No.4, pp.220-226, 2014.
- [4] W. Patton and E. Smith, “Part-time work of high school students: Impact on employability, employment outcomes and career development,”

-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19, No.1, pp.54-62, 2010.
- [5] 안소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소비와 직업에 대한 태도 및 진로의식성숙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6] 김정현, “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3호, pp.69-98, 2009.
- [7] 황나영, 이자형, “전문계 고등학교 여학생 아르바이트의 경험과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제11권, 제3호, pp.233-260, 2011.
- [8] 이경희, 박해경, “감정노동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5권, 제4호, pp.2117-2133, 2013.
- [9] 이미화, “방사선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408-415, 2015.
- [10] 이현주, 조영채,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5314-5324, 2015.
- [11] 진윤희, 김성중,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451-461, 2015.
- [12] 최병권, “업무과부하, 직무소진,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과 경력성장기회의 조절효과,”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제37권, 제4호, pp.145-170, 2013.
- [13] 유진이, “실업계 여자고등학교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2권, pp.75-114, 2008.
- [14] 구효진, 최진선,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들의 경제의식 및 근로의식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4호, pp.39-71, 2006.
- [15] 전방연, *실업계 고등학교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6]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중고등학교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17] 김종성, 이병훈, “중고등학교의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pp.33-59, 2010.
- [18] 이홍재, 변찬복, 박성중, “직무자율성, 직무만족, 정서적 조직몰입과 지식공유행동의 구조적 영향 관계,” *관광연구*, 제28권, 제3호, pp.145-168, 2013.
- [19] B. Menguc and S. N. Bhuian, “Career stage effects on job characteristic-Job satisfaction relationships among guest worker sales persons,” *Journal of Personal Selling and Sales Management*, Vol.24, No.3, pp.215-227, 2004.
- [20] 이희진, *영화제작인력의 직무만족과 관련된변인 연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21] 정은미, *중도탈락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2] 최은희, *충북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및 과제*, 충북연구원, 2016.
- [23] 정경은, 이해경,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도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2호, pp.59-79, 2005.
- [24]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25]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26] 김백신, *조직의 권한집중과 업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춘천시 행정직, 시설직공무원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7] 박해경, *임상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구조방정*

- 식모형,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8] 이성하, 이문정, 나운환, “발달장애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결정유형 및 진로의식성숙도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8권, 제2호, pp.145-169, 2012.
- [29] 관계부처합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보도자료, 2016.7.25-29.
- [30] 주영주, 김가연, “기업 이러닝에서 직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직무자율성, 만족도, 학업성취도 및 전이동기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pp.279-306, 2011.
- [31] 박지애,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2] 최지윤, 내부고객의 직무만족도가 조직성파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저 자 소 개

최 은 희(Eun-Hee Choi)

정회원



- 2001년 8월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15년 7월 ~ 현재 :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청소년 정신건강 및 노동